

부모의 훈육 방식과 아동기 문제 행동에서의 성차

김 현 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정신병리 양상에 있어 성차가 있다는 보고는 계속되어 왔으나, 이런 현상의 발달적 기제를 설명하려는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훈육이 아동의 성 사회화에 영향을 준다는 정상 발달 분야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 부적절한 훈육 방법을 통한 사회화의 역기능적 과정의 결과로, 여아는 내재화 문제를, 남아는 외현화 문제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수호화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미국 Massachusetts주 Springfield에 거주하는 학령전 아동을 둔 부모 16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표준화된 도구 [예, Child Behavior Checklist (Achenbach & Edelbrock, 1991), Eyberg Child Behavior Inventory (Robinson, Eyberg, & Ross, 1980), Parenting Scale (Arnold, Wolff, & Acker, 1993)]를 실시하고, 부모의 응답에 기초해 아동의 문제 행동과 부모의 훈육 양식간의 관계를 상관 분석하였다. 성고정관념과 불일치되는 아동의 문제 행동이 부모의 과잉반응적 훈육과 관련되고, 성고정관념과 일치되는 아동의 문제 행동은 방임 훈육과 관련될 것이라는 예측은 일관되게 지지되었다. 또한 개인의 발달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응답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조절 효과를 검토한 결과,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은 아동의 문제 행동과 부모의 훈육 간의 관계에 유의미하게 다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해, 아동 정신병리의 발달적 궤도를 이해할 때 아동 개인의 성과 사회적 맥락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최근 발달 장애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초기 아동기에 나타나는 문제 행동의 양상이나 발생 정도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4세 이전의 남아와 여아는 유사한 수준

의 문제 행동을 나타내지만(Richman, Stevenson, & Graham, 1985), 약 4세가 되면서, 성에 따라 그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남아들이 과소통제(undercontrol),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장애

(externalizing disorder)를 나타내는 비율은 여아들에 비해 거의 2-3배로 증가되는 반면, 과다통제(overcontrol), 불안-위축과 같은 내재화 장애(internalizing disorder)에서는 남아와 여아가 비슷한 정도의 발생 정도를 유지한다(Offord et al., 1987). 그러나 청소년기가 되면서, 여아의 내재화 장애가 증가되고 그 발생 빈도가 남아를 훨씬 능가하여(Keenan & Shaw, 1997), 성인기까지 여성은 정서 장애나 불안 장애 등에서 남성에 비해 거의 2배의 발생빈도를 보인다(Kessler et al., 1994). 이와 같이 정신 병리에서의 성차가 상당히 일관되게 보고되어져 왔지만, 사실상 이러한 차이로 이끄는 발달적인 선행 요인이나 경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학령기와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학령전 아동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관련된다. 특히 학령전기 여아의 내재화 문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인바, 정신 병리에서의 성차와 관련된 발달적 선행 요인을 이해하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신 병리에서 성에 따른 문제 양상의 차이로 이끄는 발달 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 발달에서의 연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Cicchetti, 1993). 정상 발달에서 성차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 중의 하나는 사회화에 초점을 둔 것이다. 사회화 과정에서 초기의 강력한 대리인(agents)은 가족 환경, 특히 부모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생애 초기에 주로 부모에 의해 성유형화된 행동이 조성된다는 이론은 사회과학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폭넓게 받아들여져 왔다 (Lytton & Romney, 1991).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아의 의존성이나 정적 놀이(quiet play)는 정상

으로 간주되지만, 공격성이나 동적 놀이(rough and tumble play)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용적이지 않다. 따라서 여아에게서 나타나는 경미한 수준의 불안이나 의존성은 이러한 행동이 남아에게 나타났을 때보다 부모에 의해 훨씬 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고무되는 경향이 있다. 부모의 성 차별적인 사회화에 관한 Maccoby와 Jacklin(1974)의 고전적인 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은 전통적으로 성유형화된 놀이 활동과 장난감 선택에 대해 강화를 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제로 자녀의 성유형화된 행동을 강화한다. Huston(1983)도 여아는 의존성이나 애정적 행동, 그리고 부드러운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 고무되지만, 남아는 대근육 운동 활동이 격려받고 성인의 감독으로부터 보다 자유롭다고 보고했다. 한편, 부모가 여아와 남아를 키울 때 체계적인 차이를 나타내는지와 관련해 Lytton과 Romney(1991)는 172개의 관련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효과 크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유형된 활동을 고무하는 부분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임을 발견하였다.

Keenan과 Shaw(1997)는 이러한 정상 발달에서의 연구 결과를, 정신 병리에서의 성차의 발달적 선행요인을 설명하는 것과 연결하고, 여아의 내재화 행동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행동과 여성의 성 역할과 일치되기 때문에, 부모, 교사, 또래 집단의 영향력을 통해 부분적으로 사회화된다고 가설화했다. 그러나, 사실상, 성의 사회화 과정과 발달적인 정신 병리 간의 관계를 경험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다. 단 일부 연구에서 아동의 일부 행동들, 예를 들면, 아동의 공격성(Fagot, 1984), 수줍음(Simpson & Stevenson-Hinde, 1985), 그리고 의존성(Fagot,

1978) 등을 부모의 반응과 관련해 고찰해 보았는데, 이러한 행동을 특정한 내재화 혹은 외현화 증상의 준임상적인(subclinical) 형태로 고려해 볼 때, Keenan과 Shaw의 가설의 타당성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공격적 행동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보다 수용적인 반면, 수줍음이나 의존적 행동은 남아보다는 여아에게서 보다 수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동의 정서 반응에 대한 가설적 이야기를 주고 부모의 반응을 연구한 Birnbaum과 Croll(1984)도 부모들이 남아에게는 분노를, 여아에게는 두려움을 보다 수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가 자녀의 성에 따라 상이한 기대를 가지고 자녀의 행동에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고, 결국 아동이 사회에서 기대하는 성역할과 일치되는 방식의 행동을 조성하게 된다는 사회화 가설은 발달 정신 병리의 발달적 과정과 선행 요인을 밝히는데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일상적인 자녀 훈육의 맥락에서, 초기의 성 사회화와 아동의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자녀 훈육과 아동의 문제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모의 비효율적인 훈육 전략이 남아의品行 장애(conduct disorder)에 위험 요소(risk factor)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 왔으나(예, 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Webster-Stratton, 1996), 부모의 훈육 스타일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혹은 여아에게 부모의 훈육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정상적인, 비위험 집단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부모는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보다

자주 신체적 처벌을 가하고, 여아에게는 덜 공격적이고 보다 따뜻하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ytton & Romney, 1991).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차별적인 훈육이 장기적으로 남녀 아동에게 어떤 심리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다. 따라서 발달 장애의 성비에서의 불균형 현상과 관련해, 부모의 비효율적인 훈육 방식이 아동의 성과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발달 경로를 만들어 가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Arnold, O'Leary, Wolff, 그리고 Acker(1993)은 부모의 비효율적인 훈육을 과잉 반응(over-reactiveness)과 방임(laxness) 등의 개념으로 제안했는데, 이러한 구성 개념은 현 연구의 관심을 검증하기에 유용하다. Arnold 등에 따르면, 방임은 부모가 자녀에게 굴복하고, 규칙을 강제로 부여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경향을 말하고, 과잉반응은 분노, 인색함, 성급함 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잘못된 부모 훈육 양식들, 아동의 성과 관련해 볼 때, 부모는 성고정관념과 일치되지 않는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는 과잉 반응의 훈육을 나타내고, 성고정관념과 일치되는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는 방임 훈육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성과 관련된 부모의 이러한 반응들은, 아동으로 하여금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성 유형화된 행동 양식으로 더 많이 드러내도록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부모의 훈육이 아동의 문제행동 양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볼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의 외현화 행동은 부모의 방임적

훈육과 관련될 것이다. 남아의 외현화 행동은 부모의 성 고정관념의 범위 내에서 보다 규범적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부모는 남아의 외현화 행동에 대해 방임적이 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둘째로, 여아의 외현화 행동은 사회적 규범을 위배하기 때문에, 남아와는 달리 여아의 외현화 행동이 부모의 과잉 반응적 훈육과 관련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남아의 외현화 행동과 부모의 과잉 반응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 연구에서 예측을 보류한다. 남아를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들에서 부모의 과잉 반응적이고 엄한 훈육과 남아의 공격성이나 품행 장애 간의 뚜렷한 관련성이 보고되어져 왔고(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Webster-Stratton, 1996), 이 관계성에 관한 주요 기제 또한 성고정관념보다는 모델링이나 상승효과(escalation)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의 관심을 벗어난다고 판단된다. 셋째, 여아의 내재적 행동과 방임적 훈육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여아의 내재적 행동은 여성에 대한 기준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 부모는 여아의 내재적 행동에 대해 방임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아의 내재적 행동은 부모의 성 고정관념 범위 내에서 규준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남아에 대해서는 유사한 예측을 하지 않는다. 대신, 마지막으로 남아의 내재적 행동과 과잉 반응적 훈육 간에 강한 관계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여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강하고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아의 내재적 행동에 대해 부모는 과잉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덧붙여, 발달 정신병리에 관한 이전 연

구에서는 종종 맥락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혹은 맥락을 고정적인 것으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아동과 가족, 문화, 그리고 사회 등의 상호적인 영향력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Zahn-Waxler, 1993). 최근, 시스템 접근에서는 사회적 요인이 개인적 요인에 깊이 내재되어(embedded)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사회화 실행과 신념에 차별적인 효과를 가진다(Parke & Buriel, 1996). Stowe(1999)는 가상적인 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여아와 남아의 내재화 그리고 외현화 증상에 대한 부모의 염려가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름을 보여주었다. 즉, 고소득의 유럽계 미국 부모는, 남아의 내재화 증상과 여아의 외현화 증상에 보다 많은 염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소득의 소수 민족 부모에게서는 아동의 성에 따른 이러한 차별적인 염려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정신병리로 이끄는 발달 궤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부모의 차별적인 사회화 과정과 같은 직접적 효과와 아울러, 사회 문화적 맥락과 같은 보다 상위 수준의 변인이 어떻게 부모의 사회화 실행과 상호작용하는지, 그래서 남아와 여아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수로화해 가는지를 역동적으로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화 실행과 아동의 문제 행동 간의 관계가 사회적 맥락-보다 구체적으로 고소득 가정대 저소득 가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작업은 사회 문화적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들의 함수에 따라, 남아와 여아에게 어떻게 다른 발달 경로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미국 Massachusetts 주, Springfield 지역의 6개 유아원(day care center)에 다니는 학령전 아동 160 명(남아 88명, 여아 72명; 평균 연령=4.5세)의 부모들로서, 이들은 대규모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다. 6개 유아원 중 4곳은 대부분 저소득 가정(연간 소득의 중앙치= \$19,500)의 아동들을 위한 기관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소수 민족 집단이었다(라틴계(34%)와 아프리카계 미국인(24%)이 주를 이루었고 나머지는 다중 인종에 해당되거나 기타로 분류되었다). 다른 2곳의 유아원은 대부분 유럽계 미국인 자녀들로 고소득 가정(연간 소득 중앙치=85,000\$)이었다. 대략 51%의 가정이 편부모(single parent) 가정이었으며(모두 어머니가 가장인 경우), 나머지 49 %는 양부모 가정이었다.

측정도구

Child Behavior Checklist. 아동의 내재적 증상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들에게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Achenbach & Edelbrock, 1991) 중 내재성 척도를 실시하였다. CBC-L 내재성 척도는 4세에서 16세 아동에게 적절한 것으로, 철회행동, 신체화 증상, 불안/우울의 3 영역, 총 31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들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0), 다소 그렇다(1), 혹은 자주 그렇다(2)의 3가지 답 중의 하나로 응답하였다. CBC-L은 내재화 문제에 대해 표준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심리측정적으로 타당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 연구에서는 교사용 CBC-L점수도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행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 비교하기 위해 포함시켰다.

Eyberg Child Behavior Inventory. 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들에게 Eyberg Child Behavior Inventory (ECBI; Robinson, Eyberg, & Ross, 1980)를 실시하였다. ECBI는 2세에서 17세 아동의 품행 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3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들은 각 문항에 기술된 행동이 자신의 자녀에게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인지를 7점 척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1) - 항상 그렇다(7)] 상에서 평정하였다. 전반적인 문제 행동의 강도 점수는 36문항에 대한 이러한 빈도 평정을 합한 값이다. 부모들은 또한 각 행동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에도 답하였다. ECBI는 아동의 품행장애를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로 보고되고 있다(Boggs, Eyberg, & Reynolds, 1990).

Parenting Scale. 어린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들에게 Parenting Scale(PS; Arnold, O'Leary, Wolff, & Acker, 1993)를 실시하였다. PS는 원래 방임, 과잉반응, 다변(verbosity)의 3가지 비효율적인 훈육 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방임적 훈육과 과잉반응 훈육에 해당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훈육시 범할 수 있는 실수를 기술하는데, 이는 보다 효율적인 대안과 함께 짝지어져, 7점 척도에서 양극점(anchor point)을 제공해 준다(예, 나는 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목소리를 높이거나 소리 지른다. - 나는 내 아이에게 조용히 이야기한다.). PS에서 높은 점수는 보다 역기능적인 훈육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PS는 높은 내적

합치도와 재검사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rnold, O'Leary, Wolff, & Acker, 1993).

Brief Symptom Inventory . 부모의 우울증을 측정하고자 Brief Symptom Inventory(BSI; Derogatis, 1993)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방임적 훈육과 아동의 내재적 증상들간의 어떠한 관계가, 단지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는 우울증 성향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절 차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유아원에서 대규모 연구를 위한 진단 시간에 위에 기술된 측정 도구들을 포함한 검사 package에 응답하였다. 부모들은 대규모 연구를 위한 검사 package에 응답하는 대가로 25\$을 받았다.

결 과

부모 훈육과 아동의 행동 간의 상관관계

표 1에서, 남아와 여아 각각에 대해 부모 훈육 변인과 아동의 행동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었다. 상관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예측을 지지하였다. 첫 번째 가설과 일치되게, 방임적 훈육은 남아의 외현화 행동과는 의미 있게 상관되었으나($r=.37, p=.01$), 여아의 외현화 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r=.14, p=.30$). 둘째, 과잉반응 훈육은 예측대로 여아의 외현화 행동과 의미있는 관련이 있었다($r=.30, p=.02$). 이 관계는 어머니의 우울증 효과를 통제했을 때 훨

씬 더 강해졌다($\text{partial } r=.49, p=.001$). 그러나 과잉반응 훈육과 남아의 외현화 행동 간의 유의미한 관계($r=.35, p=.01$)도 또한 나타났다. 이 관계는 이전 연구에 기초해 볼 때 예측되는 결과였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현 연구의 관심을 넘어선다. 셋째로, 방임적 훈육은 남아의 내재화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으나($r=.11, p=.44$), 여아의 내재화 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r=.30, p=.02$). 여아의 내재화 행동과 방임적 훈육 간의 상관이 단지 기질적으로 우울증적인 성향을 공유하는데서 기인된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아 집단에 대해 어머니의 우울증 효과를 통제한 후 부분 상관 분석($\text{partial correlation}$)을 수행했다. 여아의 내재화 행동과 방임적 훈육 간의 부분 상관은 $.29(p=.07)$ 로서, 어머니의 우울증 효과를 통제했을 때도 비슷한 크기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과잉반응적 훈육은 남아의 내재적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반면($r=.33, p=.015$), 여아의 내재적 행동과는 유의미하게 관련되지 않았다($r=.18, p=.17$).

표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훈육 양식과 아동의 행동

	남아(n=54)		여아(n=61) ^a	
	외현화	내재화	외현화	내재화
과잉 반응적	.35**	.33**	.30* (.49**) ^b	.18 ns (.15)
방임적	.37**	.11 ns	.14 ns (.13)	.30* (.29*)

^a 표본크기는 PS, CBC-L, ECBI 모두에 응답한 부모를 반영한 것이다.

^b ()안은 어머니(n=38)의 우울증을 통제하고 난후의 부분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 $P<.10$ ** $P<.05$ ** $p<.01$

부모 훈육과 아동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맥락 변인의 조절효과

아동의 성과 사회적 맥락(고소득/저소득 가정)에 기초한 4 집단 (2 x 2)에 대해 각각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에서는, 이들 4 집단에 대한 부모 훈육변인과 아동 행동 변인들 간의 상관

계수가 제시되었다. 고소득 가정의 남아들의 경우, 부모의 훈육 스타일은 아동의 문제 유형과 유의미한 상관관이 없었다. 저소득 가정의 남아들의 경우, 부모의 방임적 훈육은 외현화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r=.41, p=.01$), 내재화 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관이 없었다($r=.26, p=.13$). 과잉 반응적 훈육은 외현화 문제($r=.40, p=.02$)와 내재

표2. 아동의 성과 사회적 맥락에 따른 부모의 훈육 양식과 아동의 행동

		남 아		여 아	
		외현화	내재화	외현화	내재화
과잉반응적	고소득가정(n=19)	.24 ns	-.14 ns	.33 ns (.50)a	.24 ns (.03)
	저소득가정(n=35)	.40 *	.54 **	.29 + (.49**)	.17 ns (.19)
방임적	고소득가정(n=19)	.24 ns	-.18 ns	-.14 ns (.12)a	.41+ (.48)
	저소득가정(n=35)	.41 **	.26 ns	.18 ns (.17)a	.30+ (.25)

^a ()안은 어머니의 우울증을 통제하고 난후의 부분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일부 어머니들이 질문지 packets을 다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상관분석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졌다: 고소득가정 n=9, 저소득가정 n=26)

* $P<.10$ * $P<.05$ ** $p<.01$

표3. 아동의 성과 사회적 맥락별 주요변인들의 기초통계치

		남 나			여 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부모보고에 기초한 아동의 외현화 행동	고소득가정	99.20	37.29	20	95.67	45.59	22
	저소득가정	66.39	59.78	57	66.84	53.86	61
부모보고에 기초한 아동의 내재화 행동	고소득가정	8.00	7.70	20	5.22	4.62	22
	저소득가정	3.98	6.21	57	5.03	6.62	61
과잉반응적	고소득가정	2.95	.77	19	2.91	.59	19
	저소득가정	2.75	1.00	35	2.80	1.03	42
방임적	고소득가정	2.83	.85	19	3.00	.76	19
	저소득가정	2.97	1.04	35	2.71	.87	42
교사보고에 기초한 아동의 외현화 행동	고소득가정	10.83	11.13	20	4.36	5.01	21
	저소득가정	12.03	11.58	44	8.05	9.08	52
교사보고에 기초한 아동의 내재화 행동	고소득가정	3.45	3.24	20	2.40	3.19	21
	저소득가정	4.50	4.33	44	5.81	6.15	52

화 문제($r=.54, p=.001$)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여아들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방임적 훈육은 고소득 집단 ($r=-.14, p=.58$)과 저소득 집단($r=.18, p=.26$) 모두에서 유의하게 상관되지 않았으나, 내재적 행동에서는 고소득 집단($r=.41, p=.06$)과 저소득 집단($r=.30, p=.06$)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비록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상관계수가 유의미성 기준 .05 수준에 이르지지는 못했지만, 과잉반응적 훈육과 여아의 외현적 행동 간의 비교적 큰 상관은, 고소득 가정($r=.33, p=.17$)과 저소득 가정($r=.30, p=.06$)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과잉 반응적 훈육과 여아의 내재적 문제 간의 상관은 고소득, 저소득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런 양상은 어머니의 우울증 효과를 통제했을 때도 여전히 유지되었다. 즉 여아의 외현화 행동과 부모의 과잉반응적 훈육 간의 상관은 고소득 가정에서는 .50($p=.12$)이고, 저소득 가정에서는 .49($p=.01$) 였다. 반면, 여아의 내재적 행동과 방임적 훈육 간의 상관은 고소득 가정에서는 .48($p=.14$)이고, 저소득 가정에서는 .25($p=.20$)로 나타났다.

논 의

비록 부모의 양육이 아동의 성사회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은 많이 있었으나, 성사회화가 정신병리의 양상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는 거의 없었다. 현 연구에서는 정신병리에서의 성차 현상에 정상적인 사회화에서와 같은 기제가 작용하리라는 가정 아래, 아동이 성고정관념과 불일치되는 행동을 하

는 경향이 있을 때, 부모는 과잉반응적인 훈육 행동을 하게 되고, 아동이 성고정관념과 일치되는 행동 경향을 나타낼 때 보다 방임적인 훈육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훈육 과정이 아동들로 하여금 그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가질 때 성고정관념과 일치되는 행동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수로화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부모의 훈육 스타일과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현 연구에서의 예측은 일관되게 지지되었다. 즉, 여아의 외현화 행동은 부모의 과잉반응적 훈육과 관련되었고, 여아의 내재화 행동은 방임적 훈육과 관련되었다. 또한 외현화 행동과 방임적 훈육간의 강한 관계와, 내재화 행동과 과잉반응적 훈육 간의 관계는 남아에게서는 나타났으나, 여아에게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와 남아의 비임상적인 행동들이 부모의 성고정관념과 일치될 때 강화되고, 불일치될 때 처벌되는 것을 보여준 선행 연구들의 발견과 일치된다. 예를 들면, 남아의 의존성은 보다 부정적인 부모의 반응을 받은 반면(Fagot, 1978), 남아의 주장성(Kerig, Cowan, & Cowan, 1993)과 동적 놀이(Fagot, 1978)는 보다 긍정적인 부모의 반응을 받았다. 현 연구의 자료는 이러한 입장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여, 부모가 남아의 외현화 문제와 여아의 내재화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하고 비의도적이긴 하지만 고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사하게 부모들은 남아의 내재화 행동과 여아의 외현화 행동을 용인하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 같다.

현 연구에서 여아의 내재화 행동과 부모의 양육 행동 간의 관계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여아의 내재화 행동은 부모의 성고정관념 때문에 초기에 간과될 수 있고, 또한 이런 문제가 외

현화 문제보다는 부모에게 덜 성가시고 별로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 위탁될 가능성이 극히 적어진다. 여아의 내재화 행동과 방임적 훈육 간의 상관은 사회적 맥락에 관계없이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에 대한 성사회화의 압력이 만연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학령전 시기부터 성사회화 압력이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에 의해 병리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아동의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후 청소년기에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남아의 품행 문제나 여아의 우울증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좀더 흥미로운 결과는 이러한 부모의 훈육을 통한 사회화 요인과 사회적 맥락 요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 나타났다. 저소득 가정에 비해, 고소득 가정에서 여아의 내재화 문제와 방임적 훈육 간의 상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소득 가정에 비해 저소득 가정에서 남아의 내재화 문제와 과잉반응적 훈육 간의 상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유형화의 압력이 여아에게는 고소득층에서 더 강하고 남아에게는 저소득층에서 더 강하다는 것을 제안해준다. 이는 아동의 정상적인 범위의 행동을 대상으로 한 Lambert 등(1979)의 연구에서, 중상층 부모는 남아의 남성성보다 여아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반면, 노동계층의 부모는 반대로 여아의 여성성보다는 남아의 남성성을 더욱 강조한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와 일치된다. 이것은 위험한 이웃에 노출되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환경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여성에 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혹은 라틴계 미국인과 앵글로계 미국인이 가지는 문화적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 효과(confounding effect)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맥락에 따른 조절 효과는 개인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생태학적인 맥락과 문화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가 미국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지,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아와 남아가 4세 이전에는 유사한 문제 행동의 수준을 나타낸다는 이전의 연구들에 기초해 볼 때 (Richman, Stevenson, & Graham, 1985), 현 연구의 표본에서는 문제 행동의 성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에 대한 보다 적절한 발달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 아동을 몇 년간 발달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부모의 훈육 양식과 이들 아동의 발달적 문제 행동 양상 간의 관련을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에서 전반적으로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 자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누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고소득 가정의 부모가 외현화, 내재화 행동 모두에서 보다 많은 문제를 가진 것으로 보고했고, 여아의 경우도 고소득 가정의 부모가 높은 외현화 문제를 보고했다. 그런데, 교사의 평정 결과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표 3 참고). 교사의 보고에서는 남아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여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보고와는 오히려 반대로, 고소득 집단의 교사는 저소득 집단의 교사보다 여아들이 외현화, 내재화 문제를 모두 훨씬 덜 가지는 것으로 기술했다. 교사에 의한 평정에서 이러한 차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고

소득가정의 경우보다 정신병리의 훨씬 많은 위험에 처해있다는 다른 연구 결과들(예, Richters & Martinez, 1993)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학령전 아동의 행동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평정들 간에는 전반적으로 낮은 일치를 보이고(Achenbach, McConaughy, & Howell, 1987), 내재화 행동보다는 외현화 행동에서(Achenbach et al. 1987; Verhulst & Akkerhui, 1989), 여아보다는 남아에 대해서(Touliatos & Lindholm, 1981) 좀더 높은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교사와 부모 간의 평정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평가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심리적, 행동적 문제의 발달에서 위험에 처한 아동을 초기에 밝혀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부모와 교사의 평정에서의 차이를 좀더 깊이있게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 연구에서 부모와 교사의 평정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아동의 문제에 대한 부모의 지각은 그들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아동의 문제에 대한 부모의 다른 인식 수준이 부모의 기능과 아동의 실제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등을 밝히는 노력은 따로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야겠지만, 여기에서 이러한 불일치된 양상에 대해 몇가지 가능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고정관념 위협과 낙인에 관한 연구에서, 낮은 지위 집단은 그들이 고정관념화되는 방식을 인식하고 있고, 이것을 자신들의 자기-지각(self-perception)에 포함시킨다(Steele, 1998; Steele, 1995). 따라서 저소득 집단은 이미 자신의 아동들이 문

제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따라서 실제 문제를 보았을 때 덜 예외적인 것으로 지각할 수 있다.

둘째, 개인/집단 불일치에 관한 사회심리 분야의 연구는 또다른 설명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불일치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는 차별받지만, 개인적으로 차별받는 예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은 소수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이 전반적으로는 문제를 많이 가지지만, 자신의 가정은 그렇지 않다고 기술했을 수 있다. Crosby (1982)와 Taylor, Wright, 그리고 Porter(1994) 등은 집단의 상황에 비교해 가족 상황을 정의하도록 한 여러 가지 과제를 통해, 개인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다수 집단보다 소수집단에서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후 연구에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다른 보고를 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요구된다.

현 연구는 다음의 몇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가 상관 분석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 연구의 설계 내에서는 차별적인 부모의 훈육 실행이 남아와 여아의 기존의 기질 혹은 성향에 대한 반응인지(Scarr & McCartney, 1983), 혹은 부모의 고정관념의 표현 때문인지(Lytton & Romney, 1983)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할 수가 없다. 또한 표본 상관의 통계적 검증의 유의성 여부는 표본의 크기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우 상당한 크기의 상관이 실제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통계적 검증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표본 상관 해석시 통계적 유의미성 뿐 아니라 상관계수의 실제적인 크기를 함께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보다 크게 하여, 현재 해석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현 연구가 횡단적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아와 여아에 대한 차별적인 반응이 연령에 따라 증가된다는 일부 연구결과(Block, 1978; Newson & Newson, 1976)가 있는 바, 종단적 연구에 의한 분석이 요청된다.

셋째, 현 연구에서 부모의 훈육 스타일과 아동의 증상에 대한 관찰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양한 방법에 의한 측정 자료들이 연구의 타당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바, 이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출처의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현 연구에 포함된 부모의 대부분은 어머니였다. Webster-Stratten(1996)은 아동의 증상을 보고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성차는 그것을 보고하는 주체의 성에 의해 또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양 부모를 모두 포함시켜서, 한쪽 부모(반대성/동성)의 훈육 스타일이 다른 부모의 훈육 스타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예를 들어, 어머니가 역기능적인 훈육을 실행할 때 아버지의 훈육 스타일은 어떻게 보호요인 혹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등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발달의 역동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보다 흥미로운 측면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Associates in Psychiatry.
- Achenbach, T. M., McConaughy, S. H., & Howell, C. T. (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13-232.
- Arnold, D. S., O'Leary, S. G., Wolff, L. S., & Acker, M. M. (1993). The parenting scale: A measure of dysfunctional parenting in discipline situations. *Psychological Assessment*, 5, 137-144.
- Birnbaum, D. W., & Croll, W. L. (1984). The etiology of children's stereotypes about sex differences in emotionality. *Sex Roles*, 10(9.10), 677-691.
- Boggs, S. R., Eyberg, S., & Reynolds, L. A. (1990). Concurrent validity of the Eyberg Child Behavior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75-78.
- Cicchetti, D. (1993).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Reactions, reflections, projections. *Developmental Review*, 13, 471-502.
- Crosby, F. (1982). *Relative deprivation and*

- working wom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osby, F. (1984). The denial of personal discrimin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7, 371-386.
- Derogatis, L. R. (1975). *Brief Symptom Inventory*. Minneapolis: National Computer Systems.
- Fagot, B. I. (1978). The influence of sex of child on parental reactions to toddler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459-465.
- Fagot, B. I. (1984). The consequents of problem behavior in toddler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385-396.
- Huston, A. C. (1983). Sex-typing.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Vol. 4, pp. 388-467). New York: Wiley.
- Kavanaugh, K. & Hopes, H. (1994). Good girls? Bad boys? Gender and development as context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In T. H. Ollendick & R. J. Prinz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16* (pp. 45-79). New York: Plenum Press.
- Keenan, K., & Shaw, D. (1997). Developmental and social influences on young girls' early problem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21 (1), 95-113.
- Kerig, P. K., Cowan, P. A., & Cowan, C. P. (1993). Marital qual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parent-child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31-939.
- Kessler, R. C., McGonagle, K.A., Zhao, S., Nelson, C. B., Hughes, M., Eshelman, S., Wilchen, H., & Kendler, K. (1994). Life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III-R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8-19.
- Lambert, W., Hamers, J., & Frasure Smith, N. (1979). *Child-rearing values*, A cross national study. Toronto.
- Lytton, H., & Romney, D. M. (1991). Parents'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boys and girl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 (2), 267-296.
- Maccoby, E. E., & Jacklin, S. N. (1978).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 Offord, D. R., Boyle, M. H., Szatmari, P., Rae-Grant, N. I., Links, P. S., Cadman, D. T., Byles, J.A., Crawford, J. W., Blum, H. M., Byrne, C., Thomas, H., & Woodward, C. A. (1987). Ontario child health study: II. Six-month prevalence of disorder and rates of service utiliz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832-836.
- Parke, R. D. & Buriel, R. (1996). Socialization in the family: Ethnic and ecological perspectives. In W. Dam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 (Vol. 3, pp. 463-539). New York: Wiley.
- Patterson, G. R., & Stouthamer-Loeber, M.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7.
- Richman, N., Stevenson, J., & Graham, P. (1985). Sex differences in outcome of pre-school behavior problems. In A. R. Nicol (Ed.), *Longitudinal studies in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pp. 75-89). New York: Wiley.
- Richters, J. E., & Martinez, P. E. (1993). 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Community Violence Project: I. Children as victims of and witnesses to violence. Special issue on children and violence.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56, 7-21.
- Robinson, E. A., Eyberg, S. M., & Ross, W. A. (1980). The standardization of an inventory of child conduc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9, 22-29.
- Ruble, D. N. & Martin, C. L. (1996). Gender development. In W. Dam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Vol. 3, pp. 933-1016). New York: Wiley.
- Simpson, A. E. & Stevenson-Hinde, J. (1985).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of three- to four-year-old boys and girls and child-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 43-53.
- Steele, C. M. (1997). Threat in the air: How stereotypes shape intellectual identity and performance. *American Psychologist*, 52, 613-629.
- Steele, C. M., Aronson, J. (1995). Stereotype threat and the intellectual test performance of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97-811.
- Stowe, R. M. (1999). Parental beliefs about child psychopathology: The relation with child gender and symptomatolo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Taylor, D. M., Wright, S. C., & Porter, L. E. (1994). Dimension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the personal/group discrimination discrepancy. In M. P. Zanna & J. M. Olson (Eds.), *The Psychology of Prejudice: The Ontario Symposium* (Vol. 7, pp. 233-255). Hillsdale, NJ: Erlbaum.
- Touliatos, J. & Lindhom, B. W. (1981). Congruence of parents' and teachers' ratings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9, 347-354.
- Verhulst, F. C., & Akkerhuis, G. W. (1989). Agreement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ratings of behavioral/emotional problems of children aged 4-12.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123-136.
- Webster-Stratton, C. (1985). Predictors of treat-

ment outcome in parent training for conduct disordered children. *Behavior Therapy*, 16, 223-243.

Webster-Stratton, C. (1996). Early-onset conduct problems: Does gender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540-551.

Zahn-Waxler, C. (1993). Warriors and worriers: Gender and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79-89.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1. Vol. 6, No. 2, 81 - 95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Parenting Style: Does Gender Socialization Matter?

Hyun-Jeo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similar mechanisms in normal socialization are responsible for developing gender differences in psychopathology, we examined the correlations between parenting and the problematic behavior of children. Our focus was whether parents were more overreactive toward children displaying gender stereotype-inconsistent behavior and more lax towards those with gender stereotype-consistent behavior. Such parenting styles then encourage psychologically difficult infants and toddlers to be socialized to express their problems in gender-stereotyped ways. As a part of large study, 160 parents of preschool-aged children (72 girls and 88 boys) from six different day-care centers, completed three questionnaires: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chenbach & Edelbrock, 1991) and the Eyberg Child Behavior Inventory (Robinson, Eyberg, & Ross, 1980) were used to assess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while the Parenting Scale (Arnold, Wolff, & Acker, 1993) assessed lax and overreactive parenting style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as a function of the child's gender. In addition, we found these relationships moderated according to the families' sociocultural background. We argue that parent's differential treatment of children in terms of gender, as well as family sociocultural status, might be risk factors for children of preschool age in developing behavioral or psychological problems which are consistent with gender stereotypes.